동작 그만 기도와 동작중 기도

(민4:1~49)

1.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3. 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4.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5.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6.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오늘 내용은 레위 자손들을 세 종족으로 분류를 합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으로 분류를 해서 성막을 이동하는데 분해해서 옮기는 작업을 지시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동작 그만 기도와 동작 중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동작 그만 기도와 동작 중 기도'

기도에 관한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이해가 책 한권으로 정리될 정도로 많고 복잡하면 결코 신앙생활의 진보가 불가능하고 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뭔지 정확한 이해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 십중팔구 종교 심리에 따른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상시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간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도하도록(실천하도록) 허락하신 특권이기 때문에 실천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복잡해지면 기도를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점에 나가서 책을 볼 때 두꺼운 책으로 기도를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내용을 읽지 않아도 의심해도 됩니다. 이 분이 과연 기도를 알고 책을 썼는지 기도를 안다면 실천하는 기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 책 한권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는 기도를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해가 없어도 되느냐? 아니요. 정확한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가 돼야 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 갖기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면 하나님도 나를 온전히 가지실 수가 있

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 갖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까지도 다 버리고 마음의 공간을 확보해서 세상이 들어와 있던 공간에 까지 하나님을 모셔 들이는 하나님 갖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 갖기 위한 기도는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고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동작 그만 기도와 동작 중 기도로 나누면 됩니다. '동작 그만 기도'는 모든 세상에서의 필요한 활동을 멈추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이고 '동작 중 기도'는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는 중에 하는 기도로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며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갖기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갖는 일이 멈추면 안 되는 일이므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세상의 활동이 멈춰진 상태의 동작 그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활동할 때에 동작 중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갖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동작 그만 기도를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동작 그만 기도의 핵심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셔서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지금도 손수 운행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로 가지려면 내 마음의 인격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이 세상일에 언제나 매이고 얽혀 있는 상태로 이 세상일의 관심사로부터 풀려나는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동작 그만의 기도가 드려지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 들이기를 원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동작 그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운이 넘쳐나는 상태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제 활동 중에 이 하나님의 충만이 가능한 한 길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동작 중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다가 하나님 가짐이 중단되고 마음에 충만했던 하나님을 상실해 버리면 이미 삶은 그 자체로 실패가 됩니다.

삶에서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장사하느라고 바빴어요. 남대문 시장에서 바쁘게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 버는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잃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쌓이면 인생자체가 실패입니다. 장사하면서 돈 벌었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실패고, 세상일에서 성공하고 잘되게 하느라 하나님을 잃거나 잊으면 그 자체가 세상 성공 위해 영혼을 팔아버린 Faust(파우스트)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일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었고 잃어서 세상일로 충만했다면 이게 바로 영혼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다고 해서 대단히 험악한 영혼만이 영혼을 팔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지로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영혼을 팔아먹는 파우스트로 살다가 교회로 또 돌아오는 것이지요. 교회로 돌아와서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면 세상 충만한 상태로 성경을 보고 말씀

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기도도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갖기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종교 심리에 따른 하나님 우상시 작업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갖기이고 동작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 그만 기도와 동작 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데 이런 말씀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성막봉사를 3장에서 대충 얘기를 했는데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 대한 얘기를 오늘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시는데, 주로 그 내용이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을 다 분해하고 영역별로 나눕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어깨로 메고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는 이런 성막이동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전의 의미가 한 개인에게 완전히 적용될 수 있는 오늘날에는 본문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정확무오 한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동작 중 기도에 치중하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모든 가정의 장자 한 사람당 레위인 한 사람을 상응시켜서 성막에서 평생 동안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장자가 첫 번째 관심사와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고 첫 번째이므로 이 세상의 모든 관심사의 대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관심사에서부터 그 다음의 관심사는 다 종속되는데 첫 번째 관심사에 유리하고 유익하고 해가 되는가를 따라서 두 번째 관심사, 세 번째 관심사를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초 태생인 장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갖게 되는 관심거리의 대표이고, 관심거리는 우리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이고 마음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으로 장자를 대속해서 하나님이 성막에 모여 있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선민들이 내 장자는 우리 집에 있는 장자가 아니라 성막에 있는 레위인이 내 장자라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믿음으로써 내 마음을 성막에 늘 보내서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레위인들이 성막을 분해해서 옮긴다는 얘깁니다. 어제 납골당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성막은 납심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말이 참 어색하지만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더 정확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납심당, 모든 선민의 마음 심장을 담은 항아리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성막에 있으므로 선민의 마음이 성막에 모여 있습니다. 250만 명의 심장이 모여 있

는 납심당이 바로 성막이었는데 이제 분해해서 옮기는데 역시 그 레위인들이 옮겨갑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이 선민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항아리이므로 옮기는 것도 실지로는 250만 명 이스라엘 선민 전체가 옮기는 것인데 단지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동작 중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동작 중 기도에서 성막이 분해돼서 옮겨지는 요소요소들이 곧 기도의 포인트가 됩니다. 이 기도의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나가서 활동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충만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서도 포인트를 짚어서 기도를 하면 동작 중 기도가 성립이 되고 하나님 충만이 유지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기도할 것이냐?
고핫 자손은 5~16절에 “성막 내의 기구들을 옮기고” 게르손 자손은 25~28절에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메며 /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며”라고 나오고, 므라리 자손은 31~33절에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라고 나오는데 제일 무거운 것들을 옮겨야 하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동작 중 기도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막 바깥으로 둘러치는 담장인 세마포 휘장과 그것들을 세우는 기둥들과 널판들이 뜻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나는 미국시민이 아니고, 내가 독일 시민권이 있다고 독일 시민이 아니고 나는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에 살아도 교인이고 아프리카에 살아도 교인이고 아시아에 살아도 교인으로 이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의식이 기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지역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지만 교회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지교회의 예배당 안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교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교회인 것도 아니고 교회의 지체요 부분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지역교회 안에는 교인 아닌 사람도 많아요. 교회라는 것이 모임인데 육체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 ‘납심당’이라고 했어요. 레위인이 250만 명의 심장의 항아리인데 예를 들어 여덟 명의 가족이 있다면 여덟 명의 심장이 항아리 안에 있는 겁니다. 레위인 한 사람이 장자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형, 동생, 자매의 심장이 그 레위인 한 사람의 항아리 속에 있어서 250만 개의 심장이 모여 있는 납심당이 성막이므로, 교회는 마음 심장이 이 땅 어디에서도 찾아지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기도예요. 마음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채로 한국에 있는 채로 아메리카에 있는 채로 그 자체가 교회인 것이지 예배당 안에 모인 자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 모여 있어도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다 마음 심장이 이 땅 어디에 다른데 가 있으면 레위인이라는 항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 가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섞여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이 기도이고,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실 수 없는데 마음 심장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자들이 교인으로 성막 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인으로 선택받아서 구분되어지는 나는 도대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점이 달라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막의 기구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점이 성막을 무려 네 겹으로 덮어서 막습니다. 각종 홍색실, 가는 베실, 청색실로 짠 휘장으로 덮고 그 위에 염소 털로 된 덮개를 덮고 그 위에 숫양의 가죽으로 된 덮개를 덮고 그 위에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네 겹으로 덮습니다. '네 겹으로 덮는다.'는 것은 교인으로 마음 심장을 하늘에 둔 자가 마음 심장을 하늘에 두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된다.'고 네 번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달라야 하느냐? 마음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음을 돈에 두었습니다. 마음 심장을 돈에 두고 사는 사람을 만나서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상행위를 할 때에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성막의 휘장으로 네 겹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지금 분해해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는 레위인들이 성막 뜰의 휘장을 걷어서 들고 가고 있고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네 겹으로 된 덮개를 걷어서 들고 가고 있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무조건 달라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가 출발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고핫 자손이 옮기는 성막의 내부의 기구를 통해서 포인트를 찍어 주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활동에 붙어 버리는 것인데 매미가 고목나무에 붙어있듯이 찰싹 붙어서 따라 붙는 기도가 돼야 하는데 '나는 누구냐?'로 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삽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에 속한 자로 삽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성맨, LG맨, SK맨이라는 의식이 앞선다면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 심장을 드린 자로 SK맨, 삼성맨, 현대맨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다른 모든 직장동료들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막 덮개를 통해서 나에게 자각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동작 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잃으면 끝입니다. 승진해도 실패자로 이미 영혼을 팔아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행동했기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 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마음의 속죄소, 마음의 지성소의 법궤가 바로 기도의 포인트고 등잔대와 분향단, 떡 상이 다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판단을 한다면 이 판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밝음(등잔대)의 판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 나오는 연쇄살인범이 있다면 연쇄살인범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등잔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뉴스에 연쇄살인범을 보면서 내가 판단해 버리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뉴스를 볼 때도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내 생각에 '나쁜 놈'이라는 판단이 설 때에 등잔대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으로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나올 때 떡 상의 포인트를 주시면서 지금 뭘 먹고 배부르고 싶은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불평을 하고 있느냐? 지금 돈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 지금 내가 이미 지성소인 법궤가 놓인 그 자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만족하고 기쁠 때도 지금 왜 기뻐하느냐? 내가 하는 일이 잘돼서 기뻐하면 이미 마음의 지성소에는 일의 성과나 성과에 따른 승진이라든지 기업 내에서의 사람들의 인정이 들어와 있는 것이거나 승진에 따른 월급의 액수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크해내야 합니다.
성막이 분해돼서 옮겨지는데 레위인들이 옮기고 레위인들은 선민의 심장을 담은 항아리들로 항아리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내 마음이 그것을 들고 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들고 가고 떡 상을 들고 가고 분향단을 들고 가고 등잔대를 들고 이동하는 가운데 그것을 드는 일에 내 마음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선민의 마음 심장을 담은 항아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참여가 동작 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향단이 근본적으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의 연장선이 판단이에요. 추구하고 있으므로 추구하는 것을 올바로 확보하려면 '지금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유리한 상황이냐? 불리한 상황이냐?'라고 그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배부르고 안 이루어지면 불만스러우니 기도의 연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기도는 지성소 안에 들여놓은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해 들어가는 것으로 등잔대의 판단을 하고 떡 상의 배부름을 가늠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동작 중 기도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막을 다 분해해서 부분 부분을 들고 가는데 선민의 마음이 참여하면서 이동하는 중에도 성막에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레위기와 민수기를 읽을 때는 말씀드렸지만 수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의 인터넷 시대에 우주시대에 전기 자동차가 나오는 이 시대에 얼마나, 얼마나 살아있는 생명력을 지닌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레위기나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모세오경 속에 나오는

말씀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데, 이 말씀들을 알아야 십자가 복음의 의미가 더 생생하게 우리들 것이 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막, 성막의 요소가 우리 기도의 포인트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은 그 요소들이 가리키는 정신적 육체적 포인트들을 늘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을 성막의 구성요소가 다 커버시켜 놓았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등잔대와 연결이 됩니다. 마음의 만족과 불평과 기쁨을 체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떡 상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향단과 연결이 됩니다. 추구하고 추구함에 따른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른 만족과 불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마음의 지성소에 가장 궁극적인 가치로 모셔 놓은 것들이 있는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활동영역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동작 중 기도가 이 요소들을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저 사람이 물건을 사려고 딜을 하다가 너무 많이 깎아놓고 사지도 않고 물건마다 다 헤집어 놓고 가버렸습니다. 화가 날 때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동작 중 기도를 드리므로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을까? 그 사람의 주머니의 돈을 긁어내고 싶었는데 이익이 없을 정도로 몰아붙이니 딜이 끝나버리고 손님이 가버렸기 때문인데 이때 '하나님! 지금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포인트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 바라보아야 할 지점이 십자가입니다. 이 요소요소들을 바라보고 성막 뜰을 가리는 담장인 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마음 심장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이다. 그 교회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에 파견 나온 것이고, 교회 일원으로 미국에 파견 나온 것이지 미국사람이 아닙니다. 파견 나갔으므로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나라의 사람들과 살지만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의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있든 없든 요소요소를 짚을 때 궁극적인 우리 마음의 초점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레위인이 선민의 항아리인 것처럼 우리의 레위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심장을 담아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갖다 드리는 우리의 심장 항아리십니다. 모든 포인트를 우리가 성찰하고 마지막 단계에 반드시 주님을 기억해 내는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오늘 본문이 십자가 생활화의 내용을 풍성하게 벌여 놓은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다 십자가 생활화로 집결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집결됩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 생활화를 할 때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 갈 것이냐는 것인데, 동작 중 기도를 하는 것이고 동작 중 기도의 내용들이 성막이 분해돼서 선민의 심장의 항아리인 레위인들이 그것을 옮겨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동작 그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 갖기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충만해진 하나님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충만함이 유지되는 가운데 하늘 기운의 충만함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뭘 통해서? 동작 중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믿음과 기도는 거의 동의어라고 믿습니다. 동작 그만 기도와 동작 중 기도가 원활하게 되어서 쉬지 않는 기도가 되면 그것이 믿음의 상태요, 구원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작 그만 기도와 동작 중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